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21 불쌍한 무리들을 먹이시다, 마가복음 8:1-10)

1.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느끼셨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 때를 따라 돕는 은혜(grace to help in time of need)를 얻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3.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봅시다.
4. 하나님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시며 "너의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 너의 힘과 시간을 그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